‘연대’냐 ‘사퇴’냐…文 광주발언에 쏠린 눈

오늘 조선대서 특강…당 내분 해소방안 내놓을지 주목
문·안·박 연대에 무게…통합선대위 불가 입장 밝힐 듯
安 “혁신 없인 연대 없어” 입장 고수…‘중대 결단’ 예고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18일 광주를 방문, 당 내분 해소 방안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그 내용이 성난 광주 민심을 다독일 수 있을지 주목된다.

17일 문 대표 주변 인사들에 따르면 문 대표는 광주에서 자신이 이미 제안했던 ‘문·안·박(문재인·안철수·박원순) 희망스크럼’을 성사시키기 위해 안철수 전 공동대표와의 관계회복에 대한 발언을 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으로 문 대표는 사실상 문·안 공동지도체제로 지도부를 꾸리고 안 전 대표가 이에 합당한 위상과 권한을 행사토록 하는 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그동안 비주류 측에서 요구하는 대표직 사퇴 등에 대해서는 부정적 입장을 표시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문 대표는 “나는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지만 내가 그만둔다고 해서 당에 희망의 서광이 비치겠느냐. 누구를 배제하고 누가 주도하는 것은 지지자가 원하는 모습이 아니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이와 관련, 문 대표는 비주류에서 제기하는 당 대표직 사퇴 후 계파수장 연합 형태의 통합선대위 출범이 지분 나눠먹기 성격이 강한 만큼 이를 그대로 수용할 수 없다는 의미에서 “공천지분 나눠먹기는 없다”는 입장을 밝힐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문 대표의 이런 해법이 문 대표에 대한 지지를 거두고 있는 광주·전남 민심을 되돌릴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자신과 자신의 계파 기득권을 모두 내려놓는 희생을 담보하지 않는 해법이 아니고서는 현재 제1 야당에 등을 돌리고 있는 호남 민심을 잡을 수 없다는 지적이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안 전 대표의 마음도 잡기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조만간 ‘중대 결단’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진 안 전 대표는 이날 “여러 사람 이야기를 듣고 같이 의논 중이다. (발표) 시간은 정해놓지 않았다”고 말했다.

안 전 대표 측 관계자는 발표 일정에 대해 “원래 오는 19일께 하려고 했는데 여러 모임 등 당내 동향에 대해 숙고해서 2, 3일 미룰지 판단할 것”이라고 전했다.

안 전 대표의 ‘중대 결단’은 문 대표의 광주 발언에 따라 그 내용이 완전히 달라질 가능성이 크다. 문 대표가 안 전 대표의 혁신안에 대해 수용의사를 보일 경우 ‘중대 결단’이 양측의 협력을 지향하는 내용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문 대표가 ‘문재인·안철수·박원순 연대’ 등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는 수준에 그칠 경우 안 전 대표로서도 그동안 주장해온 혁신의 원칙을 포기한 채 무작정 화해하기에는 명분이 부족할 것이라는 관측도 많다.

이 경우 ‘중대 결단’은 더욱 빨라지고 문 대표를 더욱 강하게 압박하는 내용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으며, 안 전 대표 측 일각에서는 탈당론도 제기되고 있다.

안 전 대표는 이날도 기자들과 만나 ‘문안박 연대’ 가능성에 대해 “문 대표는 공천 작업에 돌입하자고 주장하는 거고 저는 당의 큰 변화가 먼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 두 달 전부터 동일한 입장인데 지금 변화가 없다”며 “제가 무슨 자리 얻자고 (혁신을) 주장하는 게 전혀 아니다. 그게 저는 가장 근본적 본질적 차이라 본다”고 말했다.

그는 또 자신의 혁신안 수용이 연대 조건인지에 대해서도 “지금 선거체제에 들어가는 게 중요한 변화가 아니다”며 “국민 마음 움직일 계기 잡으려는 그 고민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농민단체 간담회 간 文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농민단체 간담회에서 악수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여성농민회, 가톨릭농민회 등이 참석했다. /연합뉴스

“예산·법안 연계처리” 與의 역공

노동개혁 등 처리 압박…野 “한심한 발상 철회하라”

새누리당과 정부가 예산안을 무기로 야당을 압박하고 나서자 새정치민주연합이 강력 반발했다.

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 의장은 17일 긴급 당정 간담회에서 “야당이 다음달 2일 예산안을 처리하고 나면 아쉬울 게 없다. (법안 처리를 위해) 여당이 야당에 사정해야 할 판”이라며 예산안과 ▲노동개혁 5대 법안 ▲경제활성화 법안 ▲한·중FTA 비준을 연계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관련, 김용남 원내대변인은 “예산·법안 연계 처리는 최후의 수단으로 여러 가지 가능성 가운데 하나일 뿐, 공식적인 당론이나 방침으로 정해진 건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는 “만약 30일까지 합의가 어렵다면 새누리당과 정부가 수정대안 마련하는 것도 부수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고 덧붙였다.

통상적으로 예산안은 야당이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활용해온 주요 수단 중 하나다. 하지만, 이번에는 오히려 정반대 상황이 연출되는 모양새다. 이는 국회선진화법이 있기에 가능했다. 현행 국회선진화법에 따르면 여야가 다음달 2일까지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하면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원안이 국회 본회의에 자동부의된다. 이 경우 야당이 주장하는 예산 감액 및 증액 모두 반영되지 않는다. 특히 야당 의원들의 지역구 발전 등을 위한 예산안 추가 확보 역시 불가능해진다.

이에 대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안민석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를 통해 “한심한 발상”이라며 철회를 요구했다. 또 “국민 갈등이 예상되는 법안과 예산안의 연계는 예결특위를 무시하는 것”이라고도 했다. 그는 이어 전날부터 예결특위 예산안조정소위가 국회 상임위별 예비심사를 마친 정부 예산안에 대한 감액심사에 착수한 데 대해 “현미경 심사로 불필요한 예산을 모두 삭감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꼼수 증원’ 옥신각신 예산소위

여 “사·보임 1회만”…야 “가는 버스 세우자는거냐”

국회 예산결산특위 산하 예산안조정소위원회의 17일 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소위의 ‘꼼수 증원’ 논란을 놓고 승강이를 벌였다.

소위 정원을 15명에서 17명으로 늘리려던 여야 원내지도부의 시도가 무산되자 양당이 사·보임을 통해 번갈아 소위에 들어가기로 했으나, 이에 대한 여론의 시선은 곱지 않은 게 사실이다.

예결위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은 이날 본격적인 예산안 감액 심사에 앞서 “새정치민주연합 소위 위원들이 하루에 한 번씩 사·보임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사·보임은 이번 소위가 끝날 때까지 1회로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정치연합이 소위 참여 의원을 8명에서 7명으로 줄이는 대신 1명씩 번갈아 사·보임하는 ‘순번제’를 통해 사실상 8명이 모두 소위에 참여하는 효과를 보려 하자 이를 문제 삼은 것이다.

예결위 야당 간사인 새정치연합 안민석 의원은 “여당이 좋은 아이디어를 줘서 여당이 하겠다는 방식과 큰 틀에서 비슷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데, 여당 측에서 이런 식으로 나오면 ‘출발한 버스’를 다시 세우자는 것밖에 안 된다”고 맞섰다.

새누리당이 소위 참여 의원을 9명에서 8명으로 줄이면서 막판에 추가하려던 이정현 의원을 제외하는 대신 나중에 사·보임을 통해 이 의원을 교체 투입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지자 새정치연합은 이에 맞춰서 순번제를 운영하는 것이라는 게 안 의원의 설명이다.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도 “사·보임이라는 건 다른 상임위원회도 예외적으로 한정된 경우에 한다”며 “매일 사·보임을 하면 (소위가 진행되는) 14일 동안 매일 (소위 위원이) 바뀌느냐”고 새정치연합의 순번제를 비판했다.

그러자 새정치연합 정성호 의원은 “여야 정치 상황에 따라 전문성과 적합성을 따져 (위원을) 투입하고 빼는 관행은 많았다”며 “이것으로 왈가왈부할 게 아니다”고 반박했다.

한편, 증원 논란에 도로 빠지게 된 이정현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중간에 사·보임을 해서 들어가는 것은 적절한 방법도, 또 진행도 아니라고 본다”며 “소위 참여에 대한 미련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한·중 FTA 여야정 협의체 오늘 출범

여야 원내지도부 합의…공동의장에 김정훈·최재천

여야는 17일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을 위한 여야정(與野政)협의체를 18일부터 가동키로 합의했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김정훈 정책위의장·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최재천 정책위의장·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3+3’ 방식으로 회동했다. 회동 직전 새누리당 원 원대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그동안 접촉에서) 새정치연합 이종걸 원내대표와 여야정협의체를 내일부터 운영키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한·중 FTA 비준동의를 위한 여야 간 논의가 뒤늦게나마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애초 여야정 협의체는 지난달 30일 출범할 예정이었지만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비롯한 각종 정치 쟁점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 속에 가동이 늦어져 왔다.

협의체는 새누리당 김정훈, 새정치연합 최재천 정책위의장이 공동의장을 맡고,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윤병세 외교부 장관 등 소관 부처 장관들이 정부 대표로 참여한다. 국회 외교통일·산업통상자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환경노동위원회 등 관련 상임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각각 분야별로 협의회를 구성해 구체적인 논의를 하게 된다. 협의체는 분야별 협의를 바탕으로 모두 세 차례 전체회의를 열어 한·중 FTA 비준을 위한 준비 절차를 완료할 계획이다. 정부는 올해 안에 한·중 FTA가 발효되려면 늦어도 오는 26일 본회의에서 비준동의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어 시작한 ‘3+3’회동에서는 ▲영유아 무상보육(누리과정) 예산의 부담 주체 ▲가칭 ‘경제민주화·민생안정특위’와 ‘국회운영제도개선특위’의 발족 ▲26일로 예정된 본회의 처리 안건 등을 논의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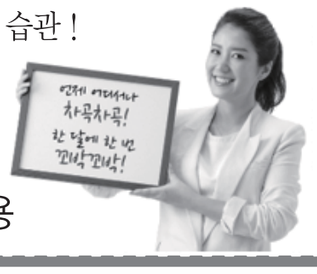
여야는 내년도 누리과정 예산을 올해와 같이 정부 예비비와 특별교부금을 통해 시도교육청의 지방채 발행 이자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마련한다는 데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박지경기자 jkpark@

“MG여성만세예금” 이란?

알뜰한 당신에게
“MG여성만세예금”을
추천합니다.
만 18세 이상인 여성들에게
수수료 면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입·출금 통장!
(단, 수수료 면제 조건이 충족 되어야 면제 됩니다.)

“MG new 정기적금”

예금을 크게 키우는 똑똑한 금융 습관!
가입조건에 따라, 우대이율이
제공되는 정액적립식 예금!
▶ 1년 최대 2.6% 이율 적용



담보대출
APT, 주택, 상가, 대지 감정가 대비 70% 가능
보증서 담보 대출(햇살론) 최대 2,000만원 가능
임대보증금 대출 보증금 대비 최대 80% 가능

신용대출
최대 5,000만원 까지 (담보대출 보유시 우대금리 적용)

※ 당사가 정하고 있는 조건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대출이 일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체크기 설치 및 유지 보수 관리(결제계좌 변경시 전자금융 수수료 면제)
※ 건수에 따라 유지보수 수수료 지원 가능

빛고을새마을금고
본점 062)525-2770~2 (용봉동 현대자동차서비스 옆)
용주점 062)525-2774~5 (용봉동 주민센터 앞)
삼각점 062)525-2776~7 (삼각동 고려고등학교 앞)